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 분석

곽 수 란¹⁾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1차, 2차 그리고 4차 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방향은 고등학교 시기의 가정배경과 학업활동(진로성숙도, 학업성취) 그리고 청년기의 경제상황, 사회적관계, 개인역량 발휘 정도가 기회평등 인식과 연계되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기회평등 인식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년기 현재 시점의 경제상황과 개인역량 발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한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기회평등, 청년층, 한국교육고용패널Ⅱ

I. 연구배경 및 목적

청년기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체, 심리 및 사회적 발달이 최정상에 있는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적성과 흥미에 근거하여 진학과 취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 학업과 같은 개인적 역량이 청년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년기 개인이 축적한 역량 수준 내에서 진로와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다. 독립적 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기에 개인이 축적한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청년기 이후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근래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에 대한 인식은 분명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청년기 이후 선택 기회 상황 때문에 기회평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청년기까지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속해있던 가정과 학교 및 그 외 하위 사회 속에서 경험했던 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층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기회평등 수준과 그것을 인식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기회평등보다는 청년 각각이 자신이 처한

1) 고구려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현실에서 한국사회 기회평등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과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교육, 취업 및 사회 문화적 접근 기회평등 인식 정도를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청년층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 기회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등한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청년층의 기회평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다.

II. 기회평등과 기회불평등

인간사회는 마을 같은 작은 단위이든 국가 같은 큰 단위이든 구성원들의 상대적 위치는 동일하지 않다. 재산, 권력, 지위 등에 있어서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위가 높은 반면,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거나 지위도 낮다. 어떤 사람은 인격과 학식으로 존경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대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 사이에 상·하의 층이 생겨난다.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갖가지 사회적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층을 사회계층이라 부른다(김신일, 2015). 인간 사회에서 사회계층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계층은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속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 등에 제한하는 조건이 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각각의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기능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정도를 기회라 하며, 각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접근하는데 차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기회평등이라 정리할 수 있다. 만약 인간답게 살기 위해 조직화된 사회에서 특정 대상에게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면 사회 전체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인간답게 살기 어렵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회평등은 중요한 주제가 된다.

평등은 기본적으로 차별 없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불평등은 차별 또는 구별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오욱환(2005)은 사회적 불평등은 육체적 특징이나 능력, 개인적 또는 집단적 성취, 사회적 또는 문화적 역할 등에 의해서 구별된 개인들 또는 집단들에게 위계적으로 내려진 사회적 평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의 결과라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계층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유형화되고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수되며 경제, 가족, 종교, 교육 등 중요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점차 강화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관점은 학자 또는 학파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론, 갈등론, 경쟁론으로 대표되는 뒤르케임학파(Durkheimian), 마르크스학파(Marxist), 베버학파(Weberian)가 대표적이다(Turner, 1998; Sanders, 1999; 오욱환, 2005 재인용). 뒤르케임을 포함하는 기능론자들은 사회는 각기 다른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따라서 각각

의 구조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능론에서는 불평등은 개인 능력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대표하는 갈등론에서는 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가진자들이 못가진자들에게 주어지는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베버를 중심으로 한 경쟁론에서는 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두집단의 계급 갈등으로 설명하는 갈등론과는 달리 계급을 지위(status), 정당(party)으로 확대하여, 자산, 위세, 권력으로 확대하여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평등 또는 불평등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개념은 차별이며, 그 차별이 직업, 자산, 위세 또는 권력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시적 한시적인지 아니면 구조화되어 변화가 어려운 형태를 갖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의 평등 또는 불평등은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냐에 따라 인식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등 또는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세대로 전수되는 특성을 갖는다면, 청년층 개인의 객관적 평가와 달리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등의식을 자신의 기회평등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년층 기회평등 인식은 단지, 청년기에 불속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청년기의 학업이나 취업 또는 성인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역량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기 개인역량의 근거가 되는 이전 학교교육 성과나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 또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가정배경과 초·중등교육 기간의 학업성취와 관계에서 탐색한 연구들이 확인된다(최성수·이수빈, 2018; 김영미, 2016; 최필선·민인식, 2015; 장상수, 2000; Corcoran et al., 1976).

성인기인 청년기는 이전 발달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 역량을 획득하여 현재 경제적, 사회적 성향을 갖게 된다. 청년층은 진로발달 단계는 학업을 마무리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진로준비는 과정인 직업적 탐색기에서 확립기로 이행하는 시기(Super, 1990)이며, 그 이행이 순조롭게 수행될 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접근에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과 연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등교육 기간의 진로성숙도는 청년층의 현재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와 기회평등과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김은선·이희수, 2018). 다만 기회평등 또는 기회불평등은 주로 경제적 상황이나 조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는 상당부분 확인된다(김영미, 2016; 조영재·반상진, 2013). 이는 사회가 평등하다거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은 경제적 조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청년기에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가족의 지원이 충분하거나, 개인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 그에 따른 보상, 즉 소득이 높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환언하면 청년기 현재 발달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역량발휘 수준에 따라 기회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 기회평등 인식은 결국 가정배경의 영향이 클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역량이 좋다는 것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학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환언적으로 초·중등교육 시기의 학업성취와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Lothaller(2010)는 청년기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 시기로 규정하였다(김영미, 2016). 교육, 취업 및 사회 문화적 활동이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했던 미성년기와 달리 청년기는 독립적으로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 청년기까지의 경험을 근거 삼아 진학과 취업 그리고 가족형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사회 청년이 그동안 경험에 의해 기회평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매우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포괄적 탐색이라는 의미는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맥락은 상당부분 연구자의 통찰에 의해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 고2 패널데이터 1차, 2차 그리고 4차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KEEPⅡ는 고등학교 유형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조사방향으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단일 패널을 학교유형별로 10,770명의 자료를 수집한 데이터이다. 표본은 고등학교 2학년 데이터인 1차와 2차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패널을 대상이다. 데이터의 동질성을 위해 고등학교 시점에서 부모가 보호자인 학생을 일차로 선정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570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 내용 및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이 고등학교 시기 가정배경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을 외생 변수로 투입하였다.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은 1차 가구조사 데이터이다. 또한 청년층의 현재 상황은 고등학교 학업활동 수준과 인과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계획으로 측정된 요인이며, 학업성취는 고2와 고3 9등급 성적이다.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는 1차와 2차 즉, 고2와 고3 학생 데이터이다.

청년기인 현재 상황은 기회평등 인식에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경제상황, 사회적관계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온 개인의 역량발휘로 영역화하여 기회평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경제상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충당 정도를 나타내는 위축생활, 경제적 수준에 따른 행동제약, 그리고 현재 가정경제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의 관계, 이성을 포함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수,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로 측정되었다. 개인역량은 청년층의 현재 위치에서 학업이나 일 또는 취업과 관련된 성과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기회평등은 교육기회, 취업승진기회, 사회적인맥형성기회 그리고 문화여가활동기회로 측정된 요인이며 4차 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변수 구성 및 설명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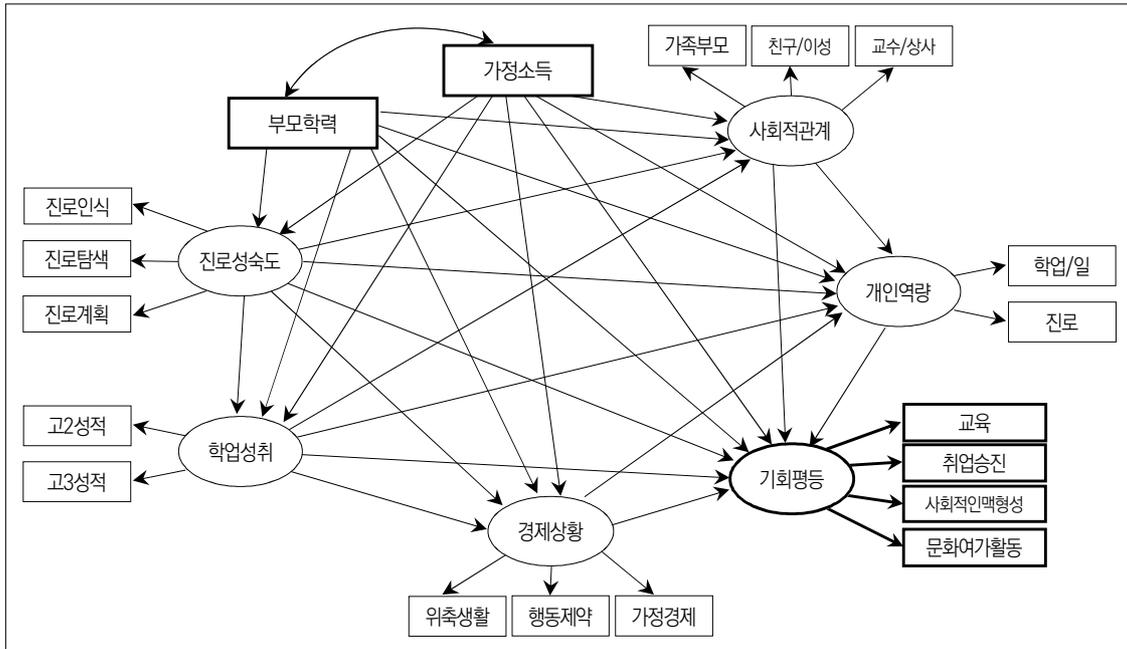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요인 및 측정변수		내용 및 척도	
부모학력		- 아버지, 어머니 학력을 교육 연수로 환산하여 평균 - 무학(1), 초등학교(6), 중학교(9), 고등학교(12), 2-3년제 대학(14), 4년제대학(16), 석사(18), 박사(21)	
가정소득		- 아버지, 어머니 월평균소득 평균 - log환산	
학업성적	고2성적	- 담임평가 9등급 성적	1등급~9등급(역산) 학업성적 좋음
	고3성적	- 학생평가 국, 영, 수 9등급 평균	
진로결정 수준	진로인식	- 진로인식 5문항 평균, 신뢰도=.801 - 진로개척 사례, 직업세계 변화, 직업윤리,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고등교육기관 - ①전혀그렇지않다~⑤매우그렇다, 5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진로인식수준 높음	
	진로탐색	- 진로탐색 4문항 평균, 신뢰도=.808 - 대학이나 전공 학과 탐색, 관심직업정보 탐색, 정보판단, 학력 및 자격정보 - ①전혀그렇지않다~⑤매우그렇다, 5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진로탐색수준 높음	
	진로계획	- 진로계획 5문항 평균, 신뢰도=.844 - 장기적인 진로계획, 고등학교 졸업이후 진로 계획, 진로 준비 방법, 진로선택 기준, 진로 어려움 극복 - ①전혀그렇지않다~⑤매우그렇다, 5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진로계획수준 높음	
사회적 관계	가족부모	- 가족과 부모와의 관계 5문항 평균, 신뢰도=.861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가족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	
	친구/이성	- 친구(5문항)와 이성(5문항) 평균 신뢰도=.824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친구와 이성과의 관계가 좋다.	
	교수/상사	- 교수, 상사와의 관계 5문항 평균, 신뢰도=.887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교수/상사와의 관계가 좋다	

요인 및 측정변수		내용 및 척도	
경제적 상황	위축된생활	- 경제적 부족,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어려움으로 생활 위축(2문항) 평균, 신뢰도=.690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경제적으로 위축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제약	-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동에 제약(2문항) 평균, 신뢰도=.836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행동제약이 적다.	
	가정경제	- 집안의 경제 상황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경제사정이 좋은 것이다	
개인역량	학업/일	- 학업이나 일에 대한 성과 5문항 평균, 신뢰도=.842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성과가 좋은 것이다.	
	진로	- 시험, 일, 취업 및 이직의 성과 5문항 평균, 신뢰도=.904 - ①전혀 ②조금 ③상당히 ④자주(역산) - 점수가 클수록 성과가 좋은 것이다.	
기회 평등	교육	- 교육기회 평등 - 매우불평등하다~매우평등하다 6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취업승진	- 취업승진 평등 - 매우불평등하다~매우평등하다 6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맥형성	- 사회적 인맥 형성 평등 - 매우불평등하다~매우평등하다 6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문화여가활동	- 문화 여가활동 불평등 - 매우불평등하다~매우평등하다 6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는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각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 그리고 평균차이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공변량 계수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요인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기법이다(이기종, 2012).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은 가중최소제곱법(WL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진로결정수준 구조방정식모형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 방법은 가중최소제곱법(WLS)이다. 일반적인 구조방정식모형 추정방법인 ML은 다른 추정방법보다 엄격한 다중변수의 정상성이라는 기본가정이 요구된다. 다중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모수값을 추정하고 이 모수값에 최대한으로 접근하는 값을 설정된 모형의 추정치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표 2>는 LISREL PRELIS를 사용하여 다중변수 정상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다중변수 정상성 분석 결과, 다중변수의 편포도 및 첨도 그리고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 검증 통계량이 크게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p=.000$ 으로 다중변수 정상성은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중변수 정상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 정상성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WLS와 같은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WLS는 표본이 정상분포에서 심하게 이탈되었더라도 표본자료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이기중, 2012).

<표 2> 다중변수 정상성 검증 결과

모형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추정값	Z값	p값	추정값	Z값	p값	χ^2	p값
전체 (N=5,570)	11.915	79.391	.000	434.872	34.369	.000	7484.140	.000

〈표 3〉 기술통계량(n=5,570)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모도	첨도	
부모교육	5.00	21.00	13.79	2.14	.09	.51	
가정소득	3.40	8.99	6.17	.51	-.03	1.61	
진로성숙도	진로인식	1.00	5.00	3.30	.69	-.10	.15
	진로탐색	1.00	5.00	3.73	.69	-.38	.38
	진로계획	1.00	5.00	3.66	.72	-.25	.01
학업성취	고2성적	1.00	9.00	5.65	1.81	-.17	-.46
	고3성적	1.00	9.00	6.02	1.60	-.36	-.13
사회적관계	가족부모	1.00	4.00	3.79	.41	-2.87	9.87
	친구/이성	1.00	4.00	3.89	.25	-3.92	20.59
	교수/상사	1.00	4.00	3.72	.51	-2.35	5.82
경제상황	위축생활	1.00	4.00	3.05	.98	-.39	-1.34
	행동제약	1.00	4.00	3.50	.68	-1.49	1.88
	가정경제	1.00	4.00	3.61	.67	-1.78	2.83
개인역량	학업/일	1.00	4.00	3.51	.55	-1.32	1.59
	진로	1.00	4.00	3.41	.64	-1.16	.85
기회평등	교육	1.00	6.00	3.45	1.15	.01	-.06
	취업승진	1.00	6.00	3.03	1.10	.20	.09
	사회적인맥형성	1.00	6.00	2.97	1.19	.22	-.24
	문화여가생활	1.00	6.00	3.51	1.28	-.09	-.43

〈표 4〉 측정변수 공분산행렬(n=5,57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4.58																			
2	.39	.26																		
3	.24	.03	.47																	
4	.17	.02	.29	.47																
5	.17	.02	.28	.35	.51															
6	.52	.06	.18	.18	.18	3.29														
7	.57	.10	.22	.21	.21	1.90	2.56													
8	.01	.01	.00	.00	.01	.04	.03	.17												
9	-.01	.00	.00	.01	.01	.02	.01	.04	.06											
10	-.02	.00	-.01	.00	.00	.00	.00	.06	.04	.26										
11	.09	.05	-.01	.01	.03	.00	.03	.09	.04	.08	.96									
12	.14	.05	.01	.02	.01	.07	.09	.11	.04	.09	.35	.46								
13	.12	.04	.00	.01	.00	.04	.05	.10	.03	.07	.21	.26	.45							
14	-.04	.00	.00	.02	.02	-.03	-.01	.08	.04	.10	.14	.13	.10	.30						
15	.01	.01	.03	.05	.07	.01	.04	.10	.05	.11	.17	.17	.14	.20	.41					
16	-.12	.01	.00	.02	.02	-.10	-.06	.05	.01	.07	.11	.11	.09	.08	.10	1.33				
17	-.07	.01	-.01	.00	.01	-.14	-.06	.06	.02	.09	.14	.11	.09	.10	.15	.69	1.21			
18	-.18	-.01	-.02	-.01	.01	-.17	-.13	.06	.02	.10	.14	.11	.11	.11	.16	.64	.82	1.43		
19	-.17	-.01	-.01	.03	.02	-.11	-.09	.06	.02	.08	.13	.14	.10	.09	.13	.70	.60	.77	1.65	

1.부모교육, 2.가정소득, 3.진로인식, 4.진로탐색, 5.진로계획, 6.고2성적, 7.고3성적, 8.가족부모, 9.친구/이성, 10.교수/상사, 11.위축생활, 12.행동제약, 13.가정경제, 14.학업/일, 15.진로, 16.교육, 17.취업승진, 18.사회적인맥형성, 19.문화여가생활

<표 3>은 측정변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으로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값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변수 정상성을 확인할 수 있는 편포도와 첨도를 볼 때, 사회적 관계 요인의 측정변수가 정상성에서 상당히 이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변수 정상성과 개별변수 정상성 검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데이터의 기본가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ML보다는 WLS로 추정된 것이다. 또한 <표 4>는 측정변수의 공분산 행렬을 제시한 것으로 <표 3>과 함께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 분석

<표 5>는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 및 분석하고 그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이다. 먼저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표인 Chi-square(χ^2)는 설정된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공분산행렬은 모집단에서의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행렬에 잘 들어맞는 정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χ^2 값이 크고 확률값이 유의미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 모형 적합도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사합치도(close fit) 인 RMSEA=.032와 그 외 정성적 지표인 GFI, CFI, RMR도 또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추정치에 위반추정치(heywood case)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개별 추정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chi^2(p)$	df	GFI	CFI	RMR	RMSEA
843.53(p=.00)	126	.98	.93	.028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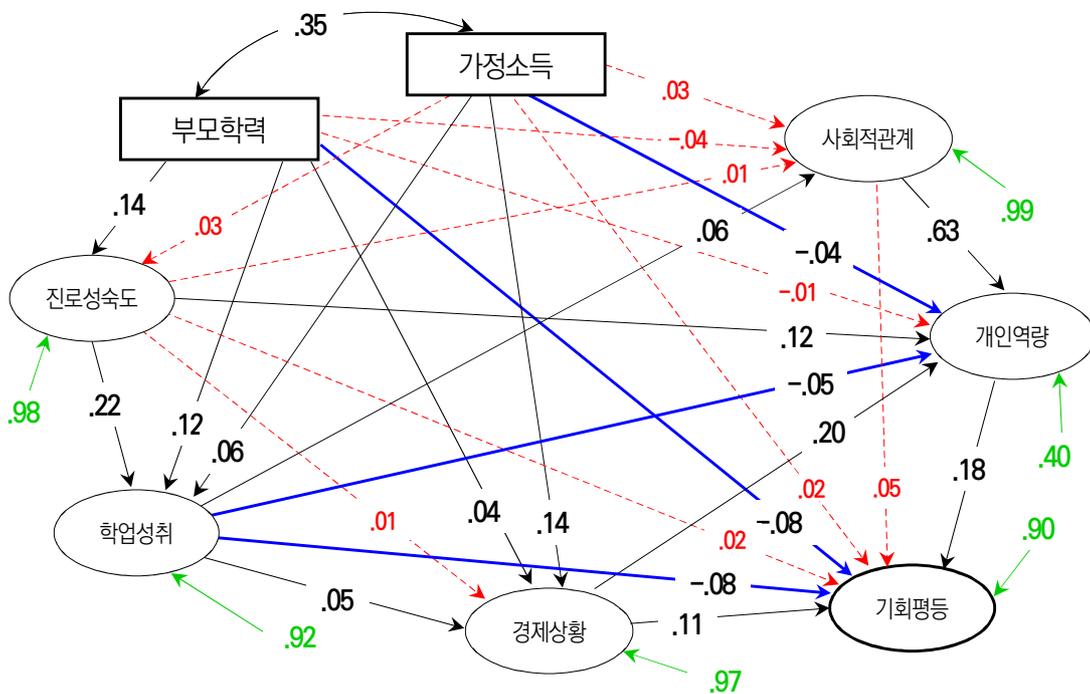
<표 6>는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진로성숙도, 학업성취, 경제상황, 사회적관계, 개인역량, 기회평등 요인을 설명하는 람다(λ) 추정치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측정변수가 각각의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석과 논의는 잠재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는 표준화추정치로 제시한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제시하였다. <표 7>은 구조방정식모형 직접효과, <표 8>은 구조방정식모형 간접효과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측정모형 추정치

추정 경로		측정모형 추정치(λ)			
		B	SE	β	t-value
진로성숙도	진로인식	1.00	-	.48	-
	진로탐색	1.22	.02	.59	51.78
	진로계획	1.19	.02	.57	49.74
학업성취	고2성적	1.00	-	1.29	-
	고3성적	1.11	.05	1.43	20.68
사회적관계	가족부모	1.00	-	.26	-
	친구/이성	.50	.02	.13	26.07
	교수/상사	1.05	.04	.27	26.08
경제상황	위축생활	1.00	-	.58	-
	행동제약	1.03	.02	.60	44.99
	가정경제	.71	.02	.41	36.16
개인역량	학업/일	1.00	-	.41	-
	진로	1.20	.03	.49	40.89
기회평등	교육	1.00	-	.79	-
	취업승진	1.08	.02	.85	43.68
	사회적인맥형성	1.14	.03	.91	43.36
	문화여가활동	1.02	.03	.81	38.93

추정치(t-value), 측정모형 전체 λ 값은 *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



[그림 2]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표 7〉 기회평등 인과관계 직접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부모학력	→ 진로성숙도	.03	.14	.00	9.12***
	→ 학업성취	.07	.12	.01	7.23***
	→ 사회적관계	.00	-.04	.00	-1.90
	→ 경제상황	.01	.04	.00	2.74**
	→ 개인역량	.00	-.01	.00	-.95
	→ 기회평등	-.03	-.08	.01	-5.03***
가정소득	→ 진로성숙도	.03	.03	.04	1.80
	→ 학업성취	.16	.06	.01	4.11***
	→ 사회적관계	.02	.03	.01	1.68
	→ 경제상황	.16	.14	.02	9.08***
	→ 개인역량	-.03	-.04	.01	-2.69**
	→ 기회평등	.03	.02	.02	1.30
진로성숙도	→ 학업성취	.58	.22	.05	11.91***
	→ 사회적관계	.00	.01	.01	.45
	→ 경제상황	.01	.01	.02	.34
	→ 개인역량	.10	.12	.01	7.84***
	→ 기회평등	.03	.02	.03	1.08
학업성취	→ 사회적관계	.01	.06	.00	3.06**
	→ 경제상황	.02	.05	.01	3.23**
	→ 개인역량	-.02	-.05	.00	-3.42***
	→ 기회평등	-.05	-.08	.01	-5.04***
사회적관계	→ 개인역량	.99	.63	.05	18.24***
	→ 기회평등	.16	.05	.12	1.30
경제상황	→ 개인역량	.14	.20	.02	7.92***
	→ 기회평등	.15	.11	.03	4.74***
개인역량	→ 기회평등	.35	.18	.07	4.84***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가정배경인 부모학력과 가정소득 효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학력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로성숙도($\beta=.14$, $t=9.12$)와 학업성취($\beta=.12$, $t=7.23$) 그리고 청년층인 현재 경제상황($\beta=.04$, $t=2.7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은 청년기에 들어선 자녀의 기회평등 인식($\beta=-.08$, $t=-5.03$)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는 높지만, 청년기 시점에서 인식하는 한국사회 기회평등은 부정적 즉 기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학력이 높은 부모인 경우 한국사회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와 학업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력이 높은 부모인 경우 그렇지 못한 부모보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가 기회평등을 인식하는 방향이 비판적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표 8〉 기회평등 인과관계 간접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부모교육	→ 학업성취	.02	.03	.00	7.35***
	→ 사회적관계	.00	.01	.00	2.79**
	→ 경제상황	.00	.01	.00	2.83**
	→ 개인역량	.00	.00	.00	.28
	→ 기회평등	.00	-.01	.00	-1.16
가정소득	→ 학업성취	.02	.01	.01	1.79
	→ 사회적관계	.00	.00	.00	2.69**
	→ 경제상황	.00	.00	.00	2.72**
	→ 개인역량	.04	.05	.01	3.83***
	→ 기회평등	.02	.02	.01	2.65**
진로성숙도	→ 사회적관계	.01	.01	.00	2.96**
	→ 경제상황	.01	.01	.00	3.12**
	→ 개인역량	.01	.01	.01	.44
	→ 기회평등	.01	.01	.01	1.03
학업성취	→ 개인역량	.02	.05	.00	3.42**
	→ 기회평등	.02	.01	.00	1.55
사회적관계	→ 기회평등	.35	.11	.07	4.72***
경제상황	→ 기회평등	.05	.04	.01	4.13***

* $p < .05$, ** $p < .01$, *** $p < .001$

그런데 가정배경인 가정소득은 부모학력과 상당히 다른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소득은 고등학교 자녀의 학업성취($\beta = .06$, $t = 4.11$)와 청년기의 경제상황($\beta = .14$, $t = 9.08$)은 부모학력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가정소득은 청년기의 개인역량($\beta = -.04$, $t = -2.69$)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회평등($\beta = .02$, $t = 1.30$)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것은 가정배경, 즉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은 자녀의 고등학교 학업성취와 청년기의 경제상황에 공통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학력이 가정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이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는 가정소득과 상당히 밀접한 인과관계를 나타내

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정배경이 청년기 사회적 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공통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정배경은 자녀에게 학업 성취나 소득, 취업과 같은 성과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좋은 성과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관계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정배경인 부모학력과 가정소득 효과의 결정적 차이는 기회평등 인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모학력→기회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부적이며, 가정소득→기회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부모학력→기회평등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가정소득→기회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결과는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은 경제상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검증 결과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시점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가 청년기의 경제상황, 사회적관계, 개인역량 및 기회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진로성숙도는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beta=.22, t=11.91$)와 청년기의 개인역량($\beta=.12, t=7.84$)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청년기의 사회적관계, 경제상황, 기회평등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는 청년기의 사회적관계($\beta=.06, t=3.06$), 경제상황($\beta=.05, t=3.23$), 개인역량($\beta=-.05, t=-3.42$), 기회평등($\beta=-.08, t=-5.0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가 좋을수록 청년기의 사회적관계, 경제상황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가 청년기의 개인역량을 발휘와 기회평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등학교 학업성취가 순수하게 공교육기관인 학교교육 성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추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가정배경 특히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고등학교 학업성취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청년층인 현재 시점에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과 연계된다. 한국사회에서 청년기는 성인기에 접어들었지만, 실제로 경제적 독립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년기인 현재도 가정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 시기 부모에 의한 가정배경의 적극적 지원은 학업성취 향상과 연계되고, 더 나아가 현재 경제상황 즉,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이 기회평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 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가 개인역량과 기회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관계와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개인역량 발휘는 오히려 낮으며, 기회평등 인식은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역량은 학업이나 일, 진로설정이나 취업 등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고등학교 학업성취가 청년기 개인역량과 오히려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중등교육 또는 학교교육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기회평등 요인은 교육, 취업, 사회적인맥형성,

문화여가활동 수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고등학교 시기 학업성취가 높더라도 교육, 취업, 사회적인맥형성,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중등교육 기간의 학업성취는 사회적 선발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중등교육 학업성취는 고등교육인 대학과 취업 선택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성취가 높을 경우 그렇지 못할 경우보다 자신이 원하는 선택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평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가정되었다. 그러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기회평등 인식이 부적인 본 연구 결과는 중등교육 기간의 학업성취와 기회평등 인식 간에 중요한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청년기의 경제상황($\beta=.11, t=4.74$), 개인역량($\beta=.18, t=4.84$)이 기회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와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업성취→사회적관계, 경제상황→개인역량으로 연계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가 긍정적 경제상황이나 사회적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 개인역량 발휘가 가능하다면 기회평등 인식이 긍정적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표 8> 참고). 결과적으로 청년기의 기회평등은 현재 시점에서 개인역량이 발휘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환언하면,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은 가정배경이나 중등학교 학업성취 수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가정배경이나 중등학교 성과들이 청년층 현재에 개인역량이 발휘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개인역량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한국사회 기회평등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진로성숙도, 학업성취, 사회적관계, 경제상황, 개인역량 그리고 기회평등의 방해오차(ζ)이다.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 방해오차는 각각 .98, .92이다. 이것은 가정배경인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이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2%, 8%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기의 경제상황, 사회적관계 그리고 개인역량의 방해오차는 각각 .97, .99, .40으로 고등학교 시점의 가정배경, 진로성숙도 그리고 학업성취가 경제상황은 3%, 사회적관계는 1% 그리고 개인역량은 60%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모형에서 기회평등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상황, 사회적관계는 그 설명력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요인 간의 낮은 설명력이 구조방정식모형 전체 적합도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시기의 가정배경과 진로성숙도, 학업성취, 청년기의 경제상황과 사회적관계 그리고 개인역량이 기회평등 인식을 설명하는 수준은 약 10%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요인들이 청년기의 기회평등 인식과의 관계가 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기의 기회평등 인식과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요인이 한국사회에서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은 본 연구모형에 투입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데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가정배경과 고등학교 시기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 그리고 청년기 현재 시점의 사회적관계, 경제상황, 개인역량의 인과관계로 확인하였다. 가정배경은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이며, 기회평등 인식은 교육, 취업, 사회적인맥형성, 문화여가 활동 기회로 측정된 것이다. 분석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배경인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이 기회평등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부모학력→기회평등은 부적효과이며, 가정소득→기회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가정소득은 학업성취, 경제상황이 매개되면 기회평등 인식에 정적 간접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모학력은 진로성숙도, 학업성취, 경제상황을 매개하더라도 기회평등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청년기의 기회평등 인식은 가정의 경제적 조건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가 청년기의 기회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진로성숙도→기회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학업성취→기회평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가 기회평등으로 연계되는 매개요인들의 간접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교육성과가 청년기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고등학교 시기의 교육성과와 청년기 기회평등 인식과 연계되는 중요한 요인이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회평등 인식과 연계된 요인을 구체적으로구인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년기 기회평등 인식은 경제상황과 개인역량 발휘가 결정적인 영향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정배경과 고등학교 학업활동이 청년기 시점에서 개인역량으로 발휘되거나, 그것이 청년기에 긍정적인 경제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긍정적 기회평등 인식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고등학교 시점부터 고등교육 기간까지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청년기 현재 시점의 기회평등 인식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가정배경이나 학업활동의 축적 그리고 그 성과와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는 본 연구를 시작할 때 가정과는 상당부분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은 본 연구모형 이외의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평등한 사회는 새로운 부양세대로 진입하는 청년기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후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에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안정된 사회유지를 위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김신일(2015).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김영미(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은선·이희수(2018).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891), 115-136.
- 오욱환(2005).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 장상수(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3), 671-708.
- 조영재·반상진(2013). 소트계층별 자녀의 대학진학 격차 분석.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3-134.
- 최성수·이수빈(2018).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77-113.
- 최필선·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2), 31-56.
- 홍두승·구해근(1995).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 Corcoran, M., Jencks, C., & Olneck, M.(1976).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earning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6(2), 430-435.
- Lothaller, H.(2010). *On the way to life-domains balanc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Joerg Tremmel(Ed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Berlin Heidelberg.
- Rumberger, R. W.(1983).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 earnings, and wealth. *Social Forces*, 61(3), 755-773.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Abstract ❖**Analysis the Perceptions on Equal Opportunity of
Early Adulthood Generation in Korean Society**

Kwak Soo-Ran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s of the equal opportunity in the early adulthood of Korean society by using the 1st and 4th wave addition data of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II (KEEP II). The analysis is to explore whether the family background and academic activities (career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in high school are linked with the per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nd too, it is to explore whether the economic condition, social relations, and individual competency in early adulthood are connected with the perception of equal opportunity. For the analysis metho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with the perceptions of equality of opportun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causality was confirmed using the LISREL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ffect factors to the perception of equal opportunity in early adulthood was the economic condition and the individu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firm the perception of equal opportunity in the early adulthood entering the Korean society as a beginner. And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used as information that will help prepare the social foundation for the early adult generation to performance responsible roles.

Key words: Equal Opportunity, Early Adulthood, KEEP II